

제43차 정기(결산) 이사회 결과

□ 이사회 개요

구 분 제 차 정기 결산 이사회

일 시 목

장 소 국립극단 온라인 회의실 비대면 이사회

출석인원 총 재적이사 명 중 명 참석 감사 명 참석

참 석 자 이사장 김상현 이사 김광보 이상우 정재승 이재경
심재찬 김명화 김철호 윤성천 위임 감사 김혁수

간 사 경영관리팀장 정광호 팀장

□ 보고사항

보고사항 제 차 정기이사회 의결 처리결과

보고사항 년 주요사업 실적보고

보고사항 명동예술극장 화재복구공사 보고

□ 심의안건

제 호 의안 년도 결산 안

제 호 의안 인사규정 개정 안

제 호 의안 복무관리규정 개정 안

제 호 의안 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안

□ 의결결과

제 호 의안 년도 결산 안 원안가결

제 호 의안 인사규정 개정 안 수정가결 제 조 부결

제 호 의안 복무관리규정 개정 안 원안가결

제 호 의안 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안 원안가결

□ 참고사항

제 차 정기이사회 주요 회의록

주요회의록

년 월 일 금

의 장 재단법인 국립극단 이사장

성원보고

이 사 장 안녕하세요 제 차 정기이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간사께서는 성원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재적이사 명 중 윤성천 이사님이 위임장 제출하신 것 포함해서 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사 장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사회에는 보고사항 건 심의안건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보고 후 안건 심의 및 의결 순으로 이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 사 장 첫 번째 보고사항은 지난 제 차 정기이사회 의결처리 결과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회의자료 쪽 제 차 정기이사회 의결처리 결과 보고함

이 사 장 보고사항에 대해 질문 있으십니까

(의견 없음)

이 사 장 질문 없으시면 첫 번째 보고사항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안은 국립극단 년 실적 보고입니다

간 사 회의자료 쪽 국립극단 년 주요사업 실적 보고함

이 사 장 년 사업실적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는데
온라인 쪽 비중이나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 명 화 온라인 공연의 반응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공연을 끝까지
지켜보는지 불만사항은 없는지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
서 궁금합니다

간 사 온라인 조회하신 분들의 평균 관람시간은 분입니다 접속만 하신 분
도 많고 끝까지 보신분도 많은데 온라인 관객 분들이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많은 의견들 중에는 예상보다는 괜찮았다 몰입도가
좋았다 등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셨고 올해에는 온라인극장을 좀
더 고품질로 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 장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조회수를 사람으로 카운트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균시간을 들었을 때는 짧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십만 명 이상이 한 번이라도 들어왔다
라고 볼 때 노출은 높아진 것 같고요 시간은 짧지만 피드백을 잘 받
아보고 모니터링을 해서 앞으로 온라인 사업이 늘어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개선할지 참고할만한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 우 온라인 공연자료 중에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자료에 접근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간 사 저작권과 연관되어 있어서 당장은 실행하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작품들을 다시
선정하고 창작자들의 협의를 통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상 우 일종의 디지털 아카이브 같은 것이 구축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 장 예고하고 일정한 시기에만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조회수가 나왔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항상 들어가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마케팅은 어떻게 하셨나요

간 사 주로 온라인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을 타겟으로 잡았고요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를 통해서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 장 유료광고도 하셨나요

간 사 네 유료 광고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료광고를 했습니다

이 사 장 나중에 광고비를 물어보고 싶기도 하네요
다른 질문 사항 없으시면 두 번째 보고사항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고안건은 명동예술극장 화재복구공사 보고입니다

간 사 회의자료 쪽 명동예술극장 화재복구공사 보고함

이 사 장 네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가보신 이사님들 있으십니까

모 두 못 가봤습니다

이 재 경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게 되면 보험료가 인상되나요

간 사 확인해 본 결과 보험료가 인상되기는 합니다만 급격하게 인상되지는 않고요 작년에 만원 정도 보험료를 냈는데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 경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엔 사고 이후 보험료가 오를 것을 대비해서 보험처리를 안하기도 하고 보험료의 일부만 받는단지도 조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보험금을 많이 받는 경우 재정적인 압박이

생기지 않나하는 관점에서 여쭙봤습니다

간 사 네 다행히 현재 재정적인 압박은 없는 상태이구요 보험금이 정도 보상된다는 가정 하에 올 해 예산에 명동예술극장 공사비용을 억 천만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험금이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사 장 추가 질문 없으시면 세 번째 보고사항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의안건

이 사 장 오늘 심의안건은 모두 가지입니다 시간관계상 가지 중 제 호 안건 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안 인데요 먼저 예술 감독님의 올해 전반적인 상황이나 생각에 대해 말씀을 듣고 안건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광 보 공연진행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동예술극장에서 월 일 까지 파우스트 엔딩 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 비극 은 내일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공연이 있고요 월 일에 막이 올라가는 자이툰 파스타 는 연습 중에 있고요 월 일 막이 오르는 조씨고 아 복수의 씨앗 도 연습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신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창작 공감 이라고 하는 신규 사업인데요 창작 공감 희곡 창작 공감 연출 창작 공감 작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창작 공감 희곡 은 기존 희곡우체통을 이어받으면서 변경을 주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창작 공감 작가는 작가를 개발하는 사업이고 창작 공감 연출 은 연출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오늘도 연출과 관련된 공모 심사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제가 온지 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립극단이 대중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

서 급하게 내려준 억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수입과 상관없이 공연을 진행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걱정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입니다 올해도 객석 띄어 앉기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수익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했을 때 공연수익을 제외한 명동예술극장에서 끌고 가야 되는 작품을 제작할 제작비가 없는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에 처해져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하고 사무국장이 안건을 만들어서 기재부에 가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예산과 관련 된 뉘두리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 장 걱정이네요 방금 들으신 것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첫 부분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다 라는 희망적인 느낌을 받다가 김광보 이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여기도 국립 이지만 공연수익에 일부 의존하는 점도 있고 큰 타격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사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는 차근차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 회의자료 쪽 제 호 심의안건 재 국립극단 년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안 보고

이 사 장 네 사업계획 변경 안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 상 우 학술 아카데미에서 예산이 백만원이 줄고 학술출판에서도 백만원이 줄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연극인 교육사업 과 희곡선 단행본 아카이브 에서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아카데미 운영과 학술출판 비용의 절감이 여기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야 까지 있나요

간 사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 우 근현대극 사업에서 예산절감이 해당이 되나요

간 사 근현대극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이 상 우 아예 폐지되었나요

간 사 네

김 명 화 이상우 이사님이 지난번 이사회 때 참석을 못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상 우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 명 화 저희가 지난번 이사회 때 안타까움을 표했었는데요 개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 장 김명화 이사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 상 우 네 지난 번 이사회 때 참석을 못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사 장 다른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십시오 지난 번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총액변경은 없어서 큰 건은 없는 것 같네요 생각보다 질문이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 호 국립극단 년 사업 계획 및 예산 변경은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호 심의안건 국립극단 년도 결산 안 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회의자료 쪽 제 호 심의안건 재 국립극단 년도 결산 안 보고함

이 사 장 감사님께서서는 감사 의견 말씀해주십시오

김 혁 수 제가 결산자료와 감사보고서를 받아서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보시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공연수익이 감소해서 수익이 줄어들었습니다 운영비나 사업비는 그대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 순손실이 억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

고요 결산서랑 운영성과표랑 차이가 발생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운영성과표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서 회계처리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운영성과를 보여주다 보니 억 손실이 난거구요 예산서를 보시면 이월되는 금액이 억 정도 있습니다 수익은 없지만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일단 예산서랑 운영성과표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요 작년 상황 때문에 영업 손실이 많이 발생했고 년도에는 정상화 되서 재정자립도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 장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명 화 아까 김광보 예술감독님이 관객수입도 줄어들어서 내년 운영이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제적 운영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그 동안 국립극단이 자체 수입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의존을 했었는지 올해 전망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간 사 실질적으로 년 공연수익을 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는 억 밖에 되지 않았습시다 억 정도의 손실이 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도 지난 이사회 때 보고 드렸던 것과 같이 전년대비 에서 수입예산을 잡았고 올해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예술감독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내년 사업을 또 운영하기 위해서는 올 해 사업에서 벌어들인다 하더라도 내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문체부와 협의하여 예산확보에 주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명 화 보통 억 정도를 수익으로 잡고 전년도 이월금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면 이월금액도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큰일이네요

간 사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약 억의 이월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억 정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억 정도의 손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국고보조금을 사업비에서 경상비로 국고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억 천만원을 경상비로 전환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억에 마이너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

습니다

이 사 장 그럼 계속 이 상태로 유지된다고 할 때 최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술감독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작편수를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는 건가요

간 사 국고보조금이 늘지 않는 이상 작품 편이 줄어들게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김 광 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 장 공연수입은 억 이상을 가져가야하는데 그게 없다는 뜻이네요 올해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다음 이사회 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재 승 문체부의 입장과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의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간 사 현재 문체부도 현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 확보에 함께 노력하자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 재 승 공연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하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잦아요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예산투입이 더 늘어나는 것이 첫 번째 고려대상일 것 같은데 고려해주고 있나요

간 사 네 예술감독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체부에서 올해도 억을 추가로 배정해 준 것이거든요 내년에도 더 늘릴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 장 올해도 상황에 대한 고려는 있었다는 것이네요 하지만 억만으로 전부 보충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이월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간 사 네 맞습니다

이 사 장 네 백신도 나왔으니깐요 내년에는 정상화 되기를 희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되겠죠

이 상 우 다 지나간 이야기이지만요 근현대극 시리즈가 없어졌잖아요 대신에 예술감독님께서 작품개발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새로운 기획을 중점적으로 밀고 나가시려는 것 같습니다 창작극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이 외에도 기성 극작가의 작품을 국립에서 한두 편씩 공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국립은 외국작품이나 번역극도 중요하지만 창작극에 무게를 두는 게 정체성과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해외신작 있잖아요 억이라는 비교적 큰 예산인데 이런 부분을 줄이고 기성 극작가의 비중 있는 창작극을 한 편이라도 하는 방향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 광 보 이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국립극단이 창작극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것에 이견은 없습니다 지금 창작 공감 회곡 같은 경우에는 젊은 작가들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중견 작가님들의 지원은 드물긴 합니다 중견 극작가나 원로 극작가님 들께 직접 의뢰를 해서 작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 장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국립은 항상 정체성이 무엇인지 예술감독님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깐요 방향성과 소신에 대해서 잘 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광 보 네 감사합니다

이 사 장 이의 없으시면 제 호 심의안건은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호 인사규정 개정 안 입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간 사 회의자료 쪽 제 호 심의안건 재 국립극단 인사규정 개정 안 보고함

이 사 장 네 이상 보고 받은 안건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 조 인사위원회설치 중 인사위원은 인에서 인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은 예술감독이 위원을 임면한다는 뜻인가요

간 사 네 맞습니다

이 사 장 그러면 예술감독이 본인을 빼고 인사위원회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간 사 네 맞습니다

이 사 장 그러면 인사위원은 상시 명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때 그 때 새로 구성하는 것입니까

간 사 네 그렇습니다 제 조 항을 보시면요 각 전형별로 인사위원을 새롭게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 장 네 그럼 징계위원회는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고요

간 사 네 그렇습니다

이 사 장 이해했습니다 예술감독님이 빠지실 수도 있겠네요

이 상 우 인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사위원회 업무진행에 대한 관리나 감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간 사 현재 인사위원회 시행규칙과 채용업무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상 우 인사위원회를 따로 관리하는 주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간 사 인사위원회를 감독하지는 않고요 인사에 대해서 년에 평균 회 문 체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상 우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있습니까

간 사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채용에는 없고요
승진이나 징계에 있어서는 가능합니다

이 상 우 내부 규정으로 다 있습니까

간 사 네 그렇습니다

이 상 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재 승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가요

간 사 현재 말씀하시는 인사위원회가 채용과 승진 징계에 한정되어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채용 공정성을 위해서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정 재 승 저희 학교도 그렇고 채용과 승진과 징계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채용대로 위원회가 있고 징계는 상벌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는 당연직이라고 해서 들어가셔야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들은 임기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서 재조정되면 안 되는 그런 요소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지

간 사 네 공공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 재 승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 사 장 다른 기업에도 인사위원회는 그 때 그 때 사람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 재 승 하지만 누가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수위와 방향이 의도대로 조정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 장 여기 보니까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상 참여해야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
리고 감사를 받고 회의록을 녹취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제도의 안전
장치 인 것 같습니다

간 사 네 맞습니다

심 재 찬 사무국장을 예술감독이 임면한다고 되어있는데 공고는 무엇입니까

간 사 인사규정 제 조 항에 보시면 사무국장은 문화체육 관광부의 승인을
얻어서 예술감독이 임면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기
는 년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연임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이번에 사무국장 채용을 별도로 했던 것이고요

심 재 찬 그럼 여기 공모를 통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상위 규정으로
하는 것입니까

간 사 아닙니다 공모를 통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임면을 예
술감독이 하기 때문에 연임도 할 수 있다 라는 것도 명시 한 것입니
다

심 재 찬 그러면 왜 공모를 하셨나요

간 사 그것은 지금 개정 전이기 때문에 공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 재 찬 그런가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의는 없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
대로 한다면 현행 내용으로 보면 공모 없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공
모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간 사 개정 후에는 공모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행
은 연임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뽑고 있
는 것입니다

이 사 장 약간 이상하네요 그쵸

심 재 찬 현행에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해야 하는데 사실 규정되어있는 건 연임밖에 없는 거거든요 공모를 통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문체부에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 사 인사규정이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인사채용의 원칙은 공개모집입니다 원칙에 대한 내용이 앞 조항에 있습니다

이 사 장 그런데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개정안이 들어감으로써 이미 채용 돼서 년의 임기를 마친 사무국장의 경우에 연임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공모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간 사 네 맞습니다

이 사 장 심재찬 이사님의 말씀은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뜻 같고요 저도 듣기에도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심 재 찬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공모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개정안이 공모를 통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돼야지 타당한 것이고 지금까지는 공모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모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개정안에는 공모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연임을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술감독이 임면하여 라고 되어 있는 것도 어째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술감독이 임면할 수가 없는 거죠 공모를 통하면요

간 사 현재 예술감독이 임면하고 있습니다

심 재 찬 아니 그게 아니고 이번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예술감독이 임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모를 하게 되니까 임면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사 장 이사님 제가 볼 때 공모하고 임면의 주체는 연결되는 문제 같지는 않고요 극단의 경우 공모가 원칙이라는 의미는 전체를 공모해야한다는

뜻 같고요 공모를 해서 임면하는 주체는 예술감독이고 문화부 장관이 승인 하는 건데 그것을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해놓은 것은 제가 보았을 때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공모는 기본 원칙이고 그 자리에 현직 사무국장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뽑히면 연임 되어서 임면할 수 있다 라는 의미처럼 해석 될 것 같습니다 극단에서는 한번 뽑힌 사람은 이 조항 때문에 공모 없이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심 재 찬 저도 연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공모 라는 부분이거든요 공모라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 사 장 그 내용을 굳이 쓰지 않아도 기본 원칙이 공모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심 재 찬 기본 원칙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 특채처럼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공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행 정관에 공모라는 말도 없고 문체부장관이 승인하여 예술감독이 임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서 지금 공모를 연임할 수 있는 건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년이라는 게 길지 않기 때문에 어느 자리든 연임을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공모이거든요 연극계에서 봤을 때 공모해서 하는구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구나 거거든요 이거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공모가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는 겁니다 현행으로 여태까지는 공모를 한 적이 없고 예술감독이 같이 하고 싶은 사람하고 쪽 했는데 저도 초대 사무국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 연임할 수 있다 가 왜 들어가는지 의아했고 분명히 공모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공모라는 것이 다른 곳은 전부 공모를 하거든요 공모를 하는 것이 좀 이번에 그렇게 해서 이의는 없는데 공모 라는 것이 들어가야 하느냐 마느냐는 민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 장 그러면 극단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공모를 진행하셨나

요

간 사 사무국장도 급 직원입니다 직원을 채용 할 때는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재찬 이사님이 사무국장 되실 때도 그랬지만 특별채용을 진행 하였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서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연임을 한 사무국장님은 안계십니다 이번에 현 사무국장의 임기는 다 되어가고 있고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연임에 대한 규정을 만든 배경은 현재 사무국장이 업무를 잘 하고 있고 새로운 예술감독님이 오셔서 잘 하고 있는 사무국장을 계속 채용해서 사무국을 안정화시키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할 때 연임을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넣은 것이고요 연임에 대한 의미는 새롭게 공모를 통해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현직에 있는 사람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공모를 진행한다는 것은 연임이 아니고 새롭게 뽑는다는 것이거든요

이 사 장 네 알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문체부와의 협의가 된 것인가 요

간 사 네 규정에 관련한 내용은 문체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사 장 네 아주 중요한 문제 같아보이지는 않지만 약간 법률문제 같네요 문체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하고 심재찬 이사님도 큰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심 재 찬 문제 삼는 것은 아닌데 말씀 하시는 게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공모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개정안만 보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현재 전체적인 추세가 공모를 하는 추세이고 제 생각으로는 향후 언젠가는 예술감독도 공모로 할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여기 개정안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문체부 장관의 승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체부 장관은 동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치는 확실하게 해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여
기에 공모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명 화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번 사무국장을 공개모집 한 상태인가
요

간 사 네 그렇습니다

심 재 찬 네 그런데 지금까지 안했는데 이걸로 보면은 예술감독이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전 사무국장보고 한 번 더 합시다 라고 하면 해
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왜 굳이 공모를 했냐는 거죠 여기에
는 개정안을 만들 것 같으면 공모를 통해서 연임 할 수 있다 로 해
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김 명 화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심재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무국장을 굳이 공개 모집을 했다면 계속해서
사무국장을 공개 모집으로 뽑겠구나라고 연극계에서 생각 할 여지가
있어서 약간 논쟁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 재 찬 그러니까 저는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좀

이 사 장 혹시 이재경 이사님이 변호사로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극단이 연임
에 대한 것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십니까

이 재 경 일반 상식에 비춰서는 문제제기가 가능한데 재량이 충분이 있고 자치
적인 차원에서 이 조항이 법원까지 간다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
니다

심 재 찬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국립극단의 사무국장을 기획이나 행정경력을 가
진 사람을 뽑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모라는 것은 나름대로
사람들에겐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모를 계속 해야 한

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는 예술감독이 임면했고 임면도 자유롭게 했었는데 공모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사실 요즘 공모 추세이잖아요 모든 게 여기 개정안으로 보면 굳이 공개모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 장 질의를 드리자면 이번에 공모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가요

간 사 네 그렇습니다

이 사 장 현재 오픈되어 있는 건가요

간 사 네

이 사 장 오현실 국장이 이번 공모에 지원했나요

간 사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일단 저희들이 오현실 국장님을 채용할 때에는 특별채용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임기만료에 있어서 김광보 예술감독님께서 연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사를 문체부에 이야기 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현재 연임에 대한 조항이 규정에 없으니 일단 공개모집을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고 예술감독님께서 수용을 하셨고 연임을 요청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다른 국립단체들도 연임에 대한 조항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임을 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 한 것입니다

김 광 보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연임과 관련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은 없었고요 그 동안에 정광호 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채용으로 임면을 해왔는데 특별채용 자체가 다른 산하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누구의 과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극단 같은 경우에는 그 항목을 바꿨어야

했지만 바꾸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임도 공모를 통해서 다시 진행해야하고 앞으로 공모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 장 그러면 심재찬 이사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전반적인 기
반들의 추세가 투명성과 공모로 가고 있는데 국립극단은 특별채용
조항이 남아있는 것은 빨리 수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고요

심 재 찬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여기다가 공모를 통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
는 조항을 넣어야한다는 의견이죠

이 사 장 심재찬 이사님 그런데 그것 보다는 이 법 체계에서 조항을 만들기에
이상해보이고요

심 재 찬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공모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 사 장 그런데 공모냐 비공모냐하는 것이 여기 들어갈만한 법체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조항에 공모가 기본 원칙이다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
까 그 원칙에 예외 조항인 특별채용에 관련해서 한 번 더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에 이번 이사회를 하면서 공모를 한 줄 넣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승인을 하고 다만 이사회의 하나의 의견으로서 공모가 전반적인
추세이므로 전체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공모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방향으로 재정비를 확실히 하고요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요 이 건에
대해서도 현직 국장도 공모에 참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모 절차를 통해서 공정하게 채용여부를 결정하기를 권고한다라고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심 재 찬 저는 여기에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국
립극단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생각해보면은요 누구나 사무국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회를 주는 것이 이것도 어떻게 보
면 법 개정인데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 장 굉장히 놓치기 쉬웠던 부분인데요 극단을 위해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연임조항 넣는 것을 이유로 연임은 공고 대상이 아니고 예술감독이 년을 더 하라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기도 합니다

심 재 찬 현재는 이게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개정안으로 보면 연임은 상관은 없지만 이것이 공모를 했다는 것이

이 사 장 심재찬 이사님 말씀으로는 현재 사무국장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심 재 찬 그럼요 당연한 거죠

이 사 장 다만 공모를 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라는 거죠

심 재 찬 네 그렇습니다 공모를 원칙으로 하자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이 사 장 다른 이사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들은 것을 정리하기로는 이 조항 승인을 하되 이사회에 권고사항이나 의결사항을 넣어서 전반적인 추세가 공모로 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니까 극단의 투명성이나 외부에서의 문제제기를 막기 위한 측면에서도 전체 직원에 대한 채용은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이번 연임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연임을 할 사람도 공모에 지원해서 똑같이 심사를 받아서 연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정리해보는 것은 어떤가요

이 상 우 아까 정광호 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무국장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간 사 네

이 상 우 문제는 뭐냐면요 전반적으로 공공예술단체의 인사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채용은 가급적 없애려고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특

별채용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면 굳이 공모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요

김 광 보 특별채용 자체가 없어지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채용 절차가 살아있는 상황이라면 공모를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항이 문체부 직속 단체들 중에서 개 단체는 이미 없어진 상태이고요 국립극단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아있었던 거고요 그 조항으로 사무국장을 연임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 조항은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공모를 해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 장 빨리 바꾸어야겠네요 그 특별채용 조항은 빨리 삭제를 해야 하는 것이 의견이고요 제가 걱정 되는 것은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제가 표현을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이것 때문에 공모를 하지 않고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서 저는 그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심 재 찬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의를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표기 되어있는 것은 공모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현재 이걸로는 예술감독이 임면을 다 할 수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 사 장 저는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아까 김명화 이사님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말씀하십시오

김 명 화 저는 특별채용 규정이 아직도 있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임 예술감독이 와서 연간 일을 할 때 낮선 구조와 낮선 직원들에게 손발이 맞는 한 두 명의 직원을 특별채용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사무국장들이 그런 식으로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규정이 문체부에서 공공성을 위해서 폐지해라라는 규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굳이 여기에서 예술감독이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꼭 공개모집을 해야한다라는 조항을 넣

는 것이 약간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심스럽고요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간단하게 두 번째 조항을 사무국장의 임기는 년이되 연임할 수 있다 정도만 살려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이번 사무국장은 공개모집으로 나갔기 때문에 연극계가 오해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고요

정 재 승 연임에 대한 횟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심 재 찬 연임에 대한 횟수는 넣지 않아도 됩니다 연임이라는 것은 한 번 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 재 승 여기서 말하는 연임을 회 연임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심 재 찬 네

김 명 화 규정을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 장 회 연임할 수 있다

정 재 승 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사 장 근데 또 계속해서 안 된다는 것도

정 재 승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사 장 이건 장단점이 있는 것 같네요 회에 한해서 할지는요

간 사 그럼 제 조는 차기 이사회 때 한 번 더 논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심 재 찬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예술감독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공모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왕 공모를 해서 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할 건데 그

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어찌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사 장 이 건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기 이사회를 기다릴건지 이 건을 필요하면 임시 이사회를 하더라도 심재찬 이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기에 공모 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들어가거나 절차적으로 확실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연임자체에 이의는 없으시지만요 특별채용이라는 게 김광보 예술감독님 말씀대로라면 그 조항을 빨리 정비를 해서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김명화 이사님께서 그 조항을 존치해서 예술감독님께 기회를 드리자는 의견도 있어서 이 사항은 인사 전체에 관한 조항과 다른 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요 아까 김광보 예술감독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문체부 입장도 임의로 채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김 광 보 네 그렇습니다

김 명 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예술감독의 임기는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팀원들과 손발이 맞아야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모두를 바꿀 수는 없더라도 한 두 명의 호흡이 잘 맞는 직원들과 들어가서 일을 좀 더 일사분란하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실제로 외국에서도 예술감독이 바뀔 때 직원들이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같이 나온다든지 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채용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문체부와 국립의 입장이라면 동의를 하는데 굳이 그 조항이 있다면 그것을 공개모집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심 재 찬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현행 정관을 가지고도 연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예술감독이 임면하는데 3년을 더해라 라고 하면 이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개정안에서 연임 할 수 있다라고 넣은 것은 지금 현재 공개모집을 시작했기 때문에 공모라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공모가 중요한 거지 연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현행을 봐도 연임시킬 수 있죠 예술감독이 임면하는데요 문체부 장관이 승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연임해도 상관없는데요 저는

연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개모집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현재 개정안은 크게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사 장 심재찬 이사님과 김명화 이사님 말씀 모두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정광호 팀장이 제안했듯이 여러 상황에 대한 배경과 설명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도 정리를 다시 해서 한 번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 재 찬 죄송합니다

이 사 장 심재찬 이사님이 제기한 문제도 국립극단을 위해서 좋은 것 같고요 김명화 이사님 말씀도 현실적이고 아주 좋은데 이게 우리 현실이나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이사회에서 고민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는 쟁점 같습니다

심 재 찬 제 말씀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 사 장 그래서 국립극단에서 전반적으로 공모가 얼마나 중요하고 잘못된 조항이라고 판단해서 개정해야 할 조항이 있는지 한 번에 다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상 우 동의합니다

간 사 네 알겠습니다

이 사 장 저는 사전에 준비하면서는 이 조항이 그렇게 중요한 조항인지 몰랐는데 듣고 보니 중요한 조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호 안건은 차기 이사회 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간 사 제 호 심의안건은 조만 차기 이사회 때 논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 사 장 네 제 호 심의안건 중 조만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호 심의안건보고 바랍니다

간 사 회의자료 쪽 재 국립극단 복무관리규정 개정 안 보고함

이 사 장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 재 찬 없습니다

이 사 장 이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립되는 것 같으니까 이번 제 호 심의안건은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 재 찬 이런 것은 국립극단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 사 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특별히 다른 말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이사회를 업무에 차질 없도록 잡으시면 좋겠고요 현재 오현실 사무국장에 대해 개인적인 여부를 논의한 점은 아니고요 법령을 정비하고 국립극단의 투명성의 관점에서 그리고 예술감독이라는 특별한 지위에서 김명화 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공직기관에서의 기관장이 아니라 지위와 관련해서 호홉을 맞출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고려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립극단 측에서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좋은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 사 네 알겠습니다

이 사 장 다른 말씀 없으시면 제 차 정기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 의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에 기명날인함

이사장 김상헌 인

이 사 김광보 인

이 사 이상우 인

이 사 정재승 인

이 사 이재경 인

이 사 심재찬 인

이 사 김명화 인

이 사 윤성천 인

이 사 김철호 인